

세계평화의 섬과 평화교육의 방향

박종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문 요약〉

1990년대 초 학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평화의 섬」에 대한 개념은 현 정부 들어 더욱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 제주도는 2005년 1월,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평화의 창출,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각종 방안들을 마련하고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평화의 섬」이라는 기사적인 인상은 줄 수 있으나 평화의 확산 및 정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나치게 형식에만 치중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즉, 평화의 내면화 및 정착의 토대가 되는 평화교육에 대한 국가 및 제주도 차원의 관심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화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이들을 활용한 평화교육을 통해 평화의 내면화, 창출 및 평화의 확산을 이끌어 내고,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위상을 공고히 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평화의 섬, 평화 교육, 평화 교육 프로그램, 평화 교육의 특성 및 내용

I. 서론

「세계평화의 섬」 개념은 1990년대 초 학계를 중심으로 수난의 역사를 간직한 제주에서 평화와 인권을 논의하자는 데서 비롯되었으며¹⁾, 또 평화의 이미지를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는 뜻도 담겨 있다. 제주도는 1991년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

1) “제주도는 ‘삼무(三無)의 섬’이라고 해서 평화를 가꾸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4·3 항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아픔을 딛고 과거사 정리의 보편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 극복해나가고 있는 모범을 실현하고 있는 등 가장 절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최인태, 2005)”.
1

통령의 방문을 시작으로 95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1996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1999년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등 주변 4국 정상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평화의 섬'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밖에도 보두앵 벨기에 국왕과 리펑 중국 총리,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 등 1990년대부터 각국 정상들의 방문이 줄을 이으면서 제주도는 국제적인 회의장소와 휴양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2000년 9월 북한 김용순 비서 일행의 방문을 시작으로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관급회담 등이 개최되는 등 냉전의 유산을 깨뜨리고 평화를 이끌어내는 단초를 제공하는 등 「평화의 섬」 이미지를 증대시켰다.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현 정부 들어 더욱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 2005년 1월,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고 정부는 “제주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기지, 평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 2005).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평화의 창출,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각종 방안들을 마련하고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의 섬」 추진 및 평화의 창출,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 제대로 된 평화교육이 이루어질 때 평화의 창출 및 확산을 넘어, 진정한 평화의 정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러한 평화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도에서는 평화교육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여기서는 제주도에서 평화가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평화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평화의 창출,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제주도 학교 교육에서의 평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평화교육의 이해

1. 평화교육의 개념

평화의 이념은 교육을 통하여 실현해 나가는 것이 평화교육이다 이는

국제이해교육, 군축교육, 반핵교육, 개발교육, 다문화교육, 환경교육, 인권교육은 물론 세계연구, 미래교육, 정치교육, 가치교육, 의식화교육, 해양교육, 대안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통일교육도 평화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화교육은 소극적 평화 및 적극적 평화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양한 소재들은 입장에 따라 '알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평화교육과 '비판적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평화교육으로 구분된다.

먼저 소극적 평화교육은 신체에 대한 폭행, 테러리즘, 혹은 전쟁과 같은 물리적(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에서 출발하며, 알리는 것이 목적, 즉 무엇인가에 대해 정보를 줌으로써 문제를 막아보자는 것으로 보다 분명한 학습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여기에는 1차 대전이후 나타나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UNESCO의 국제이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1960~70년대에 나타난 군축교육(Disarmament Education), 반핵교육(Nuclear Education) 등이 포함된다(고병헌, 1994).

또한 이는 협의의 평화교육으로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사회와 국제관계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쟁이나 폭력 그리고 물질적 결핍의 원인과 조건을 가르치며 이를 줄이거나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가능한 방법 등을 모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 교육의 목표는 개인, 제도, 사회 영역 차원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평화부재의 문제와 인간이 지향하는 보다 정의로운 세계로 이끄는 평화의 가치 실현에 대한 탐색을 추구한다(이삼열, 1992).

적극적 평화교육은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가난, 기근, 인종차별 등 구조적(간접적) 폭력의 부재를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문제의식 또는 비판적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적극적 평화교육에서는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구조적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평화의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여기에는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환경교육(Environmental Education),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 등이 포함된다(고병헌, 1994).

이는 광의의 평화교육으로 평화롭고 발전된 사회를 실현함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계몽적 교육은 모두 평화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교육은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자질을 길러주는 여러 가지 차원과 형태의 교육을 총칭한다(이삼열, 1992).

한편, 최근에는 전쟁의 방지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평화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국제상호간의 이해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을 넘어 비평화의 원인 제거에 이르는 교육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키는 것이 추세이다.

2. 평화교육의 동향

평화교육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서구에서는 1950년대 중반에서 말까지의, 국제적 갈등을 개인의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에서 연유한다고 보는 평화관과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의, 국제적 갈등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국제체제에서의 정치·경제적 경쟁에서 그 원인을 찾는 평화관이 국제이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 수용되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 1960년대의 학생운동, 선진국과 제 3세계간의 점증적 격차 등의 분위기를 타고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나타난 비판적 평화연구가 교육 현장에 수용되어 비판적 평화교육으로 나타난다. 비서구권에서는 제도화된 폭력에 시달리는 남미의 상황에 초점을 두는 제 3세계 평화교육이 등장한다(고병헌, 1994)

1) 전통적(보수적) 평화교육(1950 ~ 1960년대)

전통적 평화교육은 적대국간의 친선우호 관계를 중시하고 서로의 적대감과 공격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서 국제가이 이해, 자기인식, 갈등

및 공격성의 제거에 관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전쟁당사국가간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간, 나아가 세계대전으로의 발발을 막기 위한 편견의 극복을 통한 상호이해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평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심기 위해 대중 계몽적인 집회, 토론회, 출판물 등을 통해 평화를 교육하려는 운동에서 출발한 것으로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UNESCO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UNESCO는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교육 운동을 제창하고 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통해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국제이해 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의 이념, 교육 방법, 각종 평화연구기관에 대한 원조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UNESCO의 방식은 전쟁의 원인을 인종적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주로 교육을 통해 교실 안에서 이를 바로잡고 인류 평화에의 길을 마련하자는 국제 이해 교육 방식이다. UNESCO에서는 이러한 국제 이해교육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UNESCO 한국위원회, 1963; UNESCO 한국위원회, 1988).

① 여가, 지리 및 사회생활 - 국제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은 국가적이고 국지적인 견해에서 벗어나 역사적인 사건들의 세계사적 이해를 갖도록 해야 하며, 지리 역시 다른 나라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생활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② 자연과학 - 특히 생물학과 생리학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인종관계나 인종차별로부터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모든 나라의 과학자들과 그들의 업적을 공부함으로써 그들의 인도주의적 의식을 배움과 동시에 그들 나라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된다.

③ 언어와 문학 - 이러한 과목들은 국제이해에 대하여 더욱 뚜렷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즉, 언어를 중심으로 한 타문화에의 접근은 이해의 폭을 더욱 넓혀주고 특히 정신문화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제공해 준다.

④ 음악 - 음악은 국제적인 언어로서 어떠한 형태의 예술보다는 세계

를 자유롭게 순회할 수 있다. 더구나 다른 나라의 전통음악이나 민요 등을 통해서 감정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⑤ 회화, 조형, 공작품 - 수업에서의 미술적인 작품들은 우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감상을 할 수 있으며, 시각교재전시를 위한 작품, 연극 등을 위한 도구, 의상 등의 준비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폭 넓게 제공된다.

⑥ 기타의 방법 - 전쟁, 피난민, 전쟁 중인 국가에서의 같은 연령 학생들의 생활 등의 시사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해증진을 기하는 방법, 한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 노예사에 관한 수업, 과외활동(연중 기념일, 모금활동, 교내집회의 활동 등)을 통한 실천적 수업 등이 있다.

2) 비판적 평화교육(1970년대 이후)

이는 기존의 보수적인 관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여러 가지 갈등 극복 능력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대한 비판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한 사회 구조의 변화 강조하는 것으로, 개인적 차원의 변화를 강조하는 UNESCO의 국제이해교육이 가지는 한계점들을 비판하며 분쟁의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이의 제거를 위한 의식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체제의 문제, 국내·국제간의 갈등, 전쟁, 폭력 등의 문제를 좀 더 구조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김성재, 1989).

또한 계몽을 통한 비판의식의 고양뿐만 아니라, 인간을 정치적 행위어로 의식화 추구한다. 즉, 사회비판적 의식의 형성, 새로운 행동형성기의 훈련, 적절한 정치적 참여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오인탁, 1986),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학문적 기초로 하여 현

2) 비판적 평화교육을 주장하던 학자들은 UNESCO의 전통적 평화교육은 ① 개인의 의식개조 차원만 강조함으로써 구조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② 그럼으로써 자칫 현상 유지의 교육으로 흐를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③ 그 주제를 전쟁, 갈등, 폭력 등으로 분명히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평화교육은 해방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진원, 1999).

대 산업사회의 여러 가지 폐해, 이로 인한 인간소외, 그리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변혁방법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조적 폭력과 부정의가 이 시대를 지배한다고 보고, 평화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닌 사회적인 연대 및 행동을 통해서 구조적 문제들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적인 노력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평화를 위한 교육은 해방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과학화되고 문명화된 현재의 산업 사회에서의 평화 추구는 계층간 갈등 등의 국민감정을 제어함으로 가능한데, 산업사회가 이기적인 그리고 분리된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인간만을 기르려하므로 이의 극복을 위해 공통의 역사적 책임과 민중협동체, 그리고 협동 작업을 통한 일체감 형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결국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평화교육은 협동체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비판적 평화교육은 비평화의 원인을 자기중심적인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산업사회에서 찾고 그것이 바로 갈등의 구조적 원인임을 간파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판적 평화교육은 현대 사회의 다원적인 사회양상에 맞는 교육의 다원적인 평화에의 접근을 주장하며, 현대의 인류가 안고 있는 네 가지 비평화의 현상, 즉 공격성, 폭력성, 갈등성 및 편견성을 개인, 사회, 자연과 우주적 차원에서 시정함으로써 정의롭고 아늑한 질서를 회복 또는 건설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김정환, 1988).

예를 들어, 비판적 평화교육의 관점에 입각한 구 서독의 평화교육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김정환, 1988).

① 실천적 과제: 평화, 폭력, 갈등 등의 문제가 특히 이 원자시대의 중요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교육을 통해 이것을 다루어야 함.

② 실천적 기초: 인류와 자연이 역사상 최초로 멸절의 위기에 있음을 인식시킴.

③ 주제의 4차원적 편상: 개인, 사회, 자연, 우주의 4차원으로 주제를 편상

④ 기본과제의 부각: 평화개념을 구성하는 기본요인을 공격성, 폭력, 비폭력, 갈등, 갈등해소, 편견, 협조 등으로 부각시킴

⑤ 규범적 기초: 평화라는 덕목은 개인도덕, 사회도덕, 종교도덕 등 도덕의 기초가 됨을 강조

⑥ 방법적 기초: 평화교육은 그 논제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인문, 사회, 자연 등 모든 과학의 방법을 원용해야 함.

⑦ 연구 분야: 연구주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시작하여 모든 단계의 학교, 청소년의 근로현장, 해외계약 노무자의 작업현장, 사회 환경, 자연 환경 등 모든 국면에서 찾음

⑧ 귀속성: 평화교육은 특정 단위, 특정 교과로 구성함은 물론이요 모든 교과에서 다루며, 모든 교육이론에서 연구되어야 함.

⑨ 종합과학성: 평화교육학은 그 주제의 성격상 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의 조직적 연계에서만 가능

⑩ 시각의 축소시양: 평화교육은 한 차원 혹은 한 주제로 축소해서 다루어서는 안 됨.

비판적 평화교육은 UNESCO의 국제이해교육보다는 좀 더 확장되고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 평화교육은 비평화의 원인을 구조적 폭력과 부정의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3세계의 입장에서의 세계 평화로까지 확대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제 3세계에 대한 구조적 폭력 행사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고 선진국 중심의 이론 및 활동으로서만 그친 감이 있다.

3) 제 3세계 평화교육(1970년대 이후)

UNESCO의 국제이해교육과 비판적 평화교육은 선진국 중심이며 연구나 실천이 제3세계에서 혹은 세계의 보편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기 힘들다는 가정에서 제시된 관점으로 교육을 민중을 위한 정치화로 보고 신식민지적 구조에서의 탈피를 주장하는 네오맑시즘과 해방 신학에 토대를 두고 있다.

제 3세계에 있어서의 평화는 민중이 원하는 민족 해방을 통해 각국의 독자적인 문화 형태에 맞추어서 실현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제 3세계

에 있어서의 평화 교육은 민족을 모순의 질곡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내재하는 비평화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 즉 민족 해방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소외된 다수의 민중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삶을 위하여 절망과 체념을 벗어나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할 의지를 심어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제 3세계 평화교육은 평화의 의미가 각 시대, 각 문화권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중추부와 주변부는 전혀 다르며, 따라서 평화교육은 각각의 사회마다 자신들의 특이한 방법으로 행해져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독자적인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제 3세계에 있어서의 평화는 민중이 원하는 민족해방을 통해 각국의 독자적인 문화형태에 맞춰서 실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 3세계에서의 평화교육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등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서 채택된 '반등 10원칙'에서 그 교육적 이념 및 원칙을 찾을 수 있다(지양사 편집실, 1985).

- ① 기본적 인권 및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존중
- ② 모든 국가의 주권·영토보전의 존중
- ③ 모든 인종의 평등, 대소를 불문한 모든 국가의 평등의 승인
- ④ 타국의 내정불간섭, 불개입
- ⑤ 국제연합헌장에 합치하는 제국가에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리 존중
- ⑥ 대국의 특수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집단적 방위협정 금지 및 어떠한 국가도 타국에 압력 금지
- ⑦ 어떠한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침략행위, 협박 또는 힘의 행사 금지
- ⑧ 어떠한 국제분쟁도 국제연합헌장에 따라서 교섭, 조정, 중재 또는 재정과 같은 평화적 방법 및 당사국이 선택하는 그 이외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
- ⑨ 상호 이익과 협조의 촉진
- ⑩ 정의와 국제적 의무의 존중

또한 1979년 소모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민족 해방전선이 내걸은 13개항의 교육지표도 제 3세계 평화교육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이규환 역, 1987).

- ① 새로운 인간형성을 지향하는 교육이념과 혁명적 교육을 발전시킨다.
- ② 조국을 수호하고 혁명을 방어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식의 배양을 전제로 민족적 독립, 자기결정, 주체성 등을 강화한다.
- ③ 평등과 상호존경의 원칙에 기초한 세계의 모든 국민들간의 우정적 결속을 촉진한다.
- ④ 교육은 국가사회의 현실, 국민들의 제흥미, 적절한 과학적 경험을 참작해서 실시하고 교육과 과학을 결합시킨다.
- ⑤ 민족문화의 촉진, 발전을 교육의 활동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시킨다.
- ⑥ 인간성의 원칙을 지향하는 과학과 문화의 업적을 활용하고, 외국의 문화적 영향과 문화적 종속성을 극복한다.
- ⑦ 혁명과정의 영속에 필요한 개념적, 도구적 지식과 적절한 제 관습 및 제 능력을 개발하고 조정한다.
- ⑧ 인권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촉진한다.
- ⑨ 노동의 교육학적 가치를 강조하고, 생산노동이론과 실천의 상호작용, 신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의 결합 등을 교육의 계획과 실천의 통합적 요소가 되게 한다.
- ⑩ 비판적, 자아비판적, 과학적 창조적, 참조지향적 사고를 육성할 수 있을만한 교수와 학습의 능력을 신장하여 해방적 교육이 되게 한다.
- ⑪ 혁명의 원칙과 활동에 따른 인간적, 과학적, 정치적, 세계관적, 도덕적 교육을 촉진한다.
- ⑫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보조를 맞추어 혁명과정의 영속화에 요구되는 훈육을 하고 자질을 향상한다.
- ⑬ 교육제도의 각 영역에 국민 제 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러한 원칙과 이념하의 제 3세계에서의 평화교육체제는 결국 민족해방을 이루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교육의 한 모습을 프레이

리를 중심으로 한 민중교육론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프레이리는 의식의 고양을 통한 문화적 혁명은 민중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실천에의 길로 나서게 된다고 보고, 이러한 의식화 교육이란 대중의 각성을 통한 제 3세계에서의 변혁을 의미한다(이근혁, 1989).

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악인 학교로부터의 탈피를 통하여 개개인의 의식의 변화, 즉 자각을 촉구하고 있는 Illich의 탈학교 교육론도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제 3세계의 평화는 완전한 자주적 독립에 기초한 민중이 건강한 공동체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교육적 지표 또한 자주적이고 주체성 있는 교육과 공동체적 삶에 초점이 두어진다(김정환 역, 1984).

3. 평화교육의 주제 및 유형

Hicks는 평화교육이 다루어야 할 주요 주제들을 기술, 태도 및 지식으로 분류하여 평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Hicks, 1988). 먼저 기술의 측면에서는 비판적 사고, 협력, 공감, 단호함, 갈등해결 및 정치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판적 사고: 학생들은 문제들을 비판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인 주장 앞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또한 편견, 교화, 선전 등을 인식하고 이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협력: 학생들은 공동작업에서의 협력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 혹은 집단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공감: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과는 다른 집단, 문화, 국가 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견해와 감정들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④ 단호함: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공격적인 방식이거

나 자신의 권리를 부인하는 소극적인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⑤ 갈등해결: 학생들은 객관적이고 조직적으로 다양한 갈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갈등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식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학생들 스스로가 그 해결 방안들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정치 문제: 학생들은 개개인의 삶과 그들의 지역공동체, 그리고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차원 모두에서의 의사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두 번째 태도의 측면에서는 자기 존중, 타인 존중, 생태학적 관심, 열린 마음, 전망 및 정의에 대한 헌신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기 존중: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자신의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가족적 배경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② 타인 존중: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자기와의 다른 사회적, 문화적, 가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③ 생태학적 관심: 학생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라는 우리가 밟고 있는 곳을 존중해야 하며, 지역 환경과 지구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④ 열린 마음: 학생들은 비판적이지만 열림 마음으로 정부, 사람, 사건 등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전해야 한다.

⑤ 전망: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나아가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좀더 나은 세계는 어떤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생각과 전망에 마음을 열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⑥ 정의에 대한 헌신: 학생들은 순수하게 민주적 원리와 과정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보다 정의롭고 평화스러운 세계를 위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지식 지식의 측면에서는 갈등, 평화, 전쟁, 핵문제, 정의, 권리,

성차별, 인종차별, 환경 및 미래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갈등: 학생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들과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탐구해야 한다. 학생들은 또한 일상생활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

② 평화: 학생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서의 평화와 적극적 과정으로서의 평화의 다양한 개념들을 연구해야 하며, 평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실천 사례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③ 전쟁: 학생들은 전쟁과 관련하여 흔히 제기되는 주요 문제들과 윤리적 난제들에 관하여 숙고하여야 하며, 지역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집단에 끼치는 군사문화의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④ 핵문제: 학생들은 광범위한 핵문제에 관하여 학습해야 하고, 방위와 전쟁 억제에 관한 중요한 이론들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또한 핵전쟁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이해하고, 핵무기 철폐를 위한 각 개인과 집단, 그리고 정부의 노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정의: 학생들은 개인적, 세계적 차원에서의 부당한 상황들에 관해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정의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과 집단들의 업적에 대해서도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⑥ 권리: 학생들은 오늘날 세계에서 권력의 문제와 권력의 불공평한 분배가 사람들의 삶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또한 개인과 집단이 자신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⑦ 성차별: 학생들은 성차별과 관련된 문제들을 학습해야만 한다. 학생들은 또한 성차별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성차별주의가 남성들에게는 어떻게 이롭게,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⑧ 인종차별: 학생들은 인종차별과 관련된 문제들을 학습해야 한다. 학생

들은 또한 인종차별의 역사적 배경과 인종차별주의가 백인들에게는 어떻게 이롭게, 흑인들에게는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⑨ 환경: 학생들은 전 인류의 환경복지와 자신들이 의지하고 살아야 할 자연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생들은 환경 문제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⑩ 미래: 학생들은 가능하고 바람직한 대안적인 미래를 연구해야 한다. 학생들은 어떠한 대안이 보다 정의로우면서도 덜 폭력적인 세계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평화교육은 지역적,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이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화교육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평화교육의 유형별 분류

제 1부류	제 2부류	제 3 류
반파시즘 교육	인식교양	공동체형성교육
세계이해교육	갈등처리	공존을 위한 교육
다문화교육	갈등해소	평화정신교육
인권교육	시민교육	간디연구
문화연구	민주주의 교육	도덕교육
문화간교육		평화연구
개발교육		가치교육
국제관계교육		
군축교육		
해방교육		
생태교육		
세계연구		
국제이해교육		
쟁점교육		
상호이해교육		
정치교육		
환경교육		

제 1부류에 속한 것들은 '파시즘', '환경파괴', '군비경쟁' 등과 같은 문제지향적 성격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지식), 제 2부류는 '기술'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고, 제 3부류에 속하는 것들은 지향해야 할 '가치'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다.

제 1부류와 제 2부류를 합하면 그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교육이 되며, 따라서 평화교육은 궁극적으로 정치교육과 가치교육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게 된다. 평화교육이 정치 교육의 성격을 갖는다함은 평화교육이 다루어야 할 세 가지 학습목표인 '지식', '기술', '가치' 중에서, '지식'과 '기술'은 넓은 의미의 정치의 마당인 삶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 갈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자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영서, 1986).

평화교육이 가치교육의 성격을 갖는다함은 자율적 비판의식을 통하여 인식된 문제에 특정한 해결방향을 주는, 특히 환경, 핵과 같은 인류를 근본적으로 말할수 있는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인류의 지속적인 삶과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공동 노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안적 가치를 모색하고 교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병헌, 1994).

III. 제주도과 평화교육

1. 평화교육의 필요성

현재 우리의 학교 및 사회는 여러 가지 비평화적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 학교는 변화하는 세계와는 동떨어진 고리타분한 곳, 보충 수업으로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잡아 두는 감옥 같은 곳이 되었고, 한 번의 입시로 승부를 결정하는 선발 제도와 그로 인한 중압감, 그에 따라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끊임없는 경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 구조 등으로 인하여 학교 안과 학교 주변에 폭력이 만연하며, 많은 학생들의 인격은 참극을 겪어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도

각종 갈등과 폭력이 난무하고, 차별 및 인권 등 여러 가지 비평화적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다. 박보영(1999)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육이 기초하고 있는 양적 성장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교육은 '보다 많이, 보다 빨리, 보다 편하게'라는 가치 지향 아래 학생들에게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싸움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서울평화교육센터, 1996). 학교는 이미 학생들을 상품으로 만드는 공장이 되어버렸고, 입시는 그 불량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이 되었다. 그 결과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둘째, 입시위주의 교육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시는 양적 성장주의에 기반하여 불량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절반 이상의 '불량품'을 위한 배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가정·사회에서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삶의 의미와 희망을 상실하고, 주변부적 삶을 살며 파괴적인 가학과 자학,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교육 현상에 내재된 파괴적인 관계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권위주의적 문화에 기초하여 학생들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않고 위계질서 속에서 성인들이 정해 놓은 규범의 틀 속에서만 생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정신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순응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지식 위주의 교육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지혜가 아닌 지식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교는 지능훈련의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교육에서 지혜와 전인교육은 축출되고, 주지주의적 교육만이 남아 있다. 이러한 지혜가 아닌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은 생활과 교육을 분리하고 사물에 대한 파편적 지식만을 가르쳐, 세계를 끝없이 조각내게 하여 종합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원인들이 상호 결합되어 총체적인 비평화의 구조를 만들어 내

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에 대하여 이제 교육도 인류가 생존을 지속 시키며, 현재 우리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권리까지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답변인 동시에 또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구체화된 것이 평화교육이다(고병헌, 1994).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과 함께, 제주도에서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고, 이를 추진 및 평화의 창출,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창출,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평화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 더욱 커지고 있다.

2. 평화교육의 현황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평화교육의 필요성 및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의 특성이 반영된 평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전국적인 경향과 동일한 형태로 평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의 평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이웃사랑교육, 통일교육, 국제이해교육 등의 범교과교육과 도덕·윤리 및 사회과 등이 중심이 된 교과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평화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즉,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평화교육 및 평화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UNESCO 한국위원회에서 나온 국제이해교육의 소개 등이 소개되고 있을 뿐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평화교육적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이근혁, 1989).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평화교육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의식화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화 교육은 남미의 민족 해방 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민족해방을 위한 노동야학을 통하여,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피억압자지를 위한 교육'의 성격을 지니는 생활야학이나 노동야학을 통하여, 혹은 의식 있는 교사의 개별적, 소집단적 노력에 의지하여 왔다. 여

기에 덧붙여 한국의 특수한 평화교육의 실천으로는 분단현실로부터 나온 통일 교육을 들 수 있다(고병헌, 1994).

그러나 우리가 처한 비평화적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은 제한적이고 피상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있으며, 평화교육에 대해 소개된 출판물이나 국내에서 연구된 자료는 지극히 제한적인 상태에 있다. 몇몇의 시론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본격적인 연구와 실천적인 결과는 아직도 미비한 상태에 있다(이근혁, 1989).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평화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안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대안교육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비판 및 불신 등 교육에 대한 시대적 도전에 대한 교육실천적 대응으로, 학교교육의 한계에 대한 의식 증가 및 비판적으로 교육제도의 기능과 그 제도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폭력 구조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대안교육은 노작 교육과 인간화 교육, 그리고 체험을 통하여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학습하고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안교육에서는 각자의 개성의 실현에 있다는 정체성과 주체성 확립 교육,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의 정립, 환경교육, 미래교육, 인권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평화연구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연구 성과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평화학으로의 정착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평화교육 관련 성과물들도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의 경향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평화교육은 통일교육 쪽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주도의 상황은 더욱 더 그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의 섬」이 제대로 추진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 및 가시적인 사업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평화학을 탄생시킨 원천으로서의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이 쪽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3. 평화교육의 문제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도는 전통적 삼무정신의 계승과 현대사의 비극인 4.3의 아픈 과거를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하기 위해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통해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5년 1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제주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평화의 섬 추진 전략들은 평화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평화교육에 대한 이해 및 기반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그나마 각종 평화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일부 연구자 및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평화교육적 측면에서 대안학교 및 생태 운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평화학의 측면에서만 평화에 접근하고 있을 뿐 평화교육의 측면에서의 평화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 추진을 위한 전략에는 평화의식 내면화를 위한 학교 및 시민평화교육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제주도는 평화의 창출, 확산 및 정착 단계로 나누어 「제주 세계평화의 섬」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의 창출, 확산 및 정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행사 개최에만 치중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즉, 제주평화포럼 개최, 동북아평화연구소 설립, 남북교류 활성화 및 국제기구 유치 등과 활동은 「평화의 섬」이라는 가시적인 인상은 줄 수 있으나 평화의 확산 및 정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나치게 형식에만 치중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그 내용적인 측면, 즉 평화의 내면화 및 정착의 토대가 되는 평화교육에 대한 국가 및 제주도 차원의 관심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세계평화의 섬」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민들

사이에 평화 의식의 정착 및 내면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평화교육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편이다.

4. 평화교육의 실시 방향

제주도는 삼무와 수놓음의 평화 정신을 계승해온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이자 동북아 평화논의의 장으로서 4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특히, 제주평화포럼 개최 및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등을 통하여 평화실천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평화포럼 개최 및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 등의 평화실천사업과는 별도로 일선 초·중등 및 평생교육 기관에서 학생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교육, 즉 “세계평화의 섬” 교육적 구현을 위한, 즉 평화의 확산, 정착 및 내면화를 위한 평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세계평화의 섬”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민들 사이에 평화 의식의 정착 및 내면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화교육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평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화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세계 각 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평화 도시(일본의 히로시마시와 오키나와시, 독일의 오스나브뤽시, 스위스의 제네바 등) 및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도는 4.3과 예로부터 내려오는 삼무정신 및 4.3과 수놓음의 평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아름답고 보존가치가 큰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평화교육은 제주 지역의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앞에서 다양한 평화교육의 주제 및 유형을 제시하였지만,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에서의 평화교육은 최소한 4가지 영역, 즉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 교육, 전쟁과 평화 및 제주의 역사에 관한 교육, 환경교육(생태 교육)과 다문화 이해교육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먼저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갈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들 중의 하나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의사소통의 기술, 사고의 전개 과정 및 문제해결력 등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갈등 해결에 대한 이해 및 교육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갈등은 폭력이나 왕따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을 회피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 생각, 태도 등을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갈등의 당사자들은 함께 당면 문제를 토론하고, 분명히 하고, 실질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건설적이며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화해와 중재 기술, 의견의 불일치 및 다양성 인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전쟁 및 구조적 폭력과 평화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폭력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동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는 6.25 전쟁이 남긴 상처 및 43의 경험 등을 중심으로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와 태도의 함양에 초점을 둔다. 또한 여기서는 전쟁이나 구조적 폭력으로 인한 참상의 부각보다는 평화가 소중한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이를 지키고 창조하기 위한 노력 및 능력이 필수적임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환경(생태) 교육이다. 제주도는 천혜의 관광지로서 생태 보존 및 환경 보존이 제주도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또한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할 때 인간의 질적인 행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순히 환경이라는 물리적 환경에 국한된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전한다는 평화교육의 이념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 인식 및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에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다문화 교육이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평화의 섬'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해 앞으로 제주도는 세계 각국과의 교류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포용력(tolerance)을 기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오성배, 2005).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화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및 도시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지역의 형태를 그대로 benchmarking 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제주도의 특성이 반영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교재 및 프로그램을 토대로 지역의 대학 등과 연계하여 일선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도민들의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다.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화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이들을 활용한 평화교육을 통해 평화의 내면화, 창출 및 평화의 확산을 이끌어 내고,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위상을 공고히 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평화교육 운동의 한 방편으로 대안학교의 설립을 추진한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대학학교의 설립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비판 및 불신 등 교육에 대한 시대적 도전에 대한 교육 실천적 대응책으로 출발한 것으로, 학교교육의 한계에 대한 인식 증가 및 비판적으로 교육제도의 기능과 그 제도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폭력 구조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7년 경남 산청에 간디학교가 설립된 이후 현재 전국에는 70여개의 대안학교가 개설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더 자세한 사항은 대안학교연대 홈페이지 <http://www.psaе.or.kr> 참고).

그러나 제주도에겐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가 설립된 적이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자율학교와 미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Charter School의 개념을 통합한 형태의 대안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공립학교 중 한 두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자율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를 설립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정규 학교 중도 탈락자 등 기존의 학교 체제에서 수용하기 어렵거나 기존의 학교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하고, 이를 통한 획일화된 교육현장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삶에 대한 욕구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의 섬」이 성공을 거두고, 평화의 창출,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즉, 교육에서 제대로 된 평화교육이 이루어질 때 평화의 창출 및 확산을 넘어, 진정한 평화의 정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여기서는 제주도에서 평화가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평화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평화의 창출,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제주도 학교 교육에서의 평화교육의 방향을 모색 및 「평화의 섬」 추진을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앞에서 다양한 평화교육의 주제 및 유형을 제시하였지만,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에서의 평화교육은 최소한 4가지 영역, 즉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 교육, 전쟁과 평화 및 제주의 역사에 관한 교육, 환경교육(생태 교육)과 다문화 이해 교육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평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화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평화교육의 주제 및 유형들 중에서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교재 및 프로그램이 개발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제주 「평화의 섬」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된 교재 및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 등과 연계하여 일선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도민들의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교재 및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들은 무용지물에 불과할 뿐일 것이다. 따라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교 제도의 기능과 그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폭력 구조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큰 관심의 대상이자 활발하게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안학교를 평화교육 운동의 한 방편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평화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이들을 활용하여 유·청소년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교육이 실시 될 때 평화의 내면화, 창출 및 평화의 확산을 이끌어 내고,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위상을 공고히 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고병헌 (1994).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정치교육과 가치교육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정환 역(1984). 탈학교논쟁. 서울: 한마당.
- 박보영 (1999).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에서의 평화교육 실천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4.
- 이규환 역(1987). 비판적 교육사회학. 서울: 한울.
- 이근혁 (1989). 평화교육이념에 비추어 본 한국교육의 과제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03). 세계평화의 섬 지정 및 전략사업 추진 계획. 제주: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 제주도 (2005). 제주 세계평화의섬 지정 계획. 제주: 제주도
지양사 편집실(1985). 비동맹운동. 서울: 지양사.
청와대 (2005). 청와대 새소식(2005. 1. 27.) [Online] World Wide Web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news_data&id=1c19d67877224231c7e162b&_sso_id=1d2945d380b044e179d89a6988217ff3
UNESCO 한국위원회(1963). 국제이해교육. 서울: UNESCO 한국위원회.
UNESCO 한국위원회(1988). 국제이해교육의 길잡이. 서울: UNESCO
한국위원회.
Hicks, D. (Eds.). (1988). *Education for peace : issues, principles, and practice in the classroom*. New York: Routledge

<ABSTRACT>

The Island of World Peace and new directions for peace education in Jeju

Jong-Pil Park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overall contents on peace education and grope new directions for peace education to implement the Island of World Peace, Jeju.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er examined definition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peace education. Based on these backgrounds, the researcher suggested new directions for peace education in Jeju.

The concept of Peace Island was first suggested by scholars in Jeju, and the discussion on appointing Juju for Peace island was more lively done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Finally, Jeju was appointed for the Island of World Peace by the Presidents Mr. No on January, 2005. After the appointment, the Jeju-Do has

programmed and implemented various activities to create, expand and take roots peace, but these activities seemed to be perfunctory and might not achieve its intended goals. To solve the problems, the researcher suggested that it needs to be implemented peace education which focused on dissolving conflicts, wars and history of Jeju, environment and multicultural education.

To implement peace education, however, teaching materials and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these should be based on characteristics of Jeju because programs which were benchmarked those of other countries seemed to be ineffective. Also, to expand and internalize peace, professional personnels should be brought along to teach and operate the programs.

When teaching materials and program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Jeju are developed and professional personnels are brought along, peace education will create, internalize, and expand peace in Jeju, and the foundation for Island of World Peace, Jeju and the foundation for Island of World Peace, Jeju will be consolidated.

Key Words: The Island of World Peace, Peace education, Peace education program, Contents of peace education